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송지성	영문	Song jiseong
학과(전공)	컴퓨터공학과		학번	201**680
파견 학기	2017학년도 1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신입생 때 같은 학과 선배가 헝가리로 교환학생을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교환학생 일상을 자주 포스팅 했는데, 선배의 사진과 글을 보면서 교환학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하일브론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교환학생 파견을 위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학교 국제교류원의 안내에 따라 cv를 작성 후 국제교류원에 제출하면 상대교에서 허가 후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그 후론 절차에 나와있는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는 없었고, 여권정도 미리 발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의 경우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자없이 들어와서 하일브론의 버디와 함께 시청에서 발급 받습니다. 발급비용은 60유로 정도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보통 아시아나(인천-프랑크푸르트)로 많이 예약합니다. 가격과 비행시간을 따졌을 때 합리적이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하일브론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수강신청은 한국에서 미리 생각해 놓겠지만 결국 학교와서 다 같이 짜게 됩니다. ASE(자동차공학, 일렉트로닉 등)과로 배정된 경우, 학과의 교수님들이 교환학생을 불러다 놓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넉넉하니 걱정 안해도 되고 떨어지면 버디가 방을 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월 초에는 기숙사를 못 들어간게 속상했지만 살다보니 플랫의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기숙사는 침구류, 온갖 주방기구를 각자 마련해야하지만 플랫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공업이 발달된 중소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한 시간 반, 하이델베르크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시외버스와 기차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여행다니기 좋습니다. 날씨는 한국과 매우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의 경우 온도는 비슷하지만 습도가 낮아 많이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우선 저는 교양 5개, 전공 3개를 수강했습니다. 많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수업이 2주에 한 번(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한 학기에 딱 한 번, 이런 식의 수업도 있어서 이 정도 들어도 여행다닐 시간이 많았습니다. 교양과목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추천해 주는 수업 위주로 들었고,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과목 위주로 들었습니다.(미리 학과 교수님과 상담.)

-교양

1. Principles International Management

3월 초 1주일 수업을 진행하고 끝나는 과목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마

지막 날에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3월 한 달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2. Business Ethics(우리학교의 전문교양-직업윤리 로 학점인정 가능)

매 주 수업이 있고(휴강은 꽤 자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지목하여 질문을 자주 시킵니다.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마지막에 수업에 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시험은 따로 없고 개인 레포트가 있습니다. 출석체크 안 함.

3. English for Business Studeis 1

매주 수업을 하고 아주 간단한 프레젠테이션(5분 정도)과 시험이 있습니다. 매주 출석을 체크 합니다. 학점은 보통 잘 주시는 거 같습니다.

4. 독일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교환학생 단체로 독일어 시험을 칩니다.(독일어 과목 수강하지 않을 사람은 빠져도 됨.) 나중에 나뉜 반으로 자동 배정 됩니다.

5. 독일어 e-러닝

독일어 과목을 수강하면 선택적으로 e-러닝 과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신청기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총 4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는데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학점이 모자라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전공(컴퓨터 공학과)

1. human machine interface

금요일 8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4월부터 시작했고, 격주 또는 3주마다 한 번 씩 있어 총 수업 횟수가 5-6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험과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과목인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교환학생은 시험지가 다른데 수업 때 주의 준 부분과 교수님이 올려준 자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2명이 팀을 이뤄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과목입니다.

2. micro controller

위 과목과 같은 교수님이셨는데 매 주 수업을 진행하시고 휴강이 있으면 보강합니다. 마지막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교환학생의 경우 조교수님이 잘 도와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들을 땐 교환학생이 총 5명이어서 2명, 3명씩 팀을 이뤘습니다. 시험도 위 과목처럼 자료 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3. image processing

교환학생이 총 2명이어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따로 교수실에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시험은 따로 없고 내주신 과제만 기한내에 하고, 마감일에 교수님에게 코드 설명하시면 교수님이 코드를 상세히 질문하시고 영상을 어떤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디부분을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같은 질문도 하십니다. opencv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 과목.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종류가 총 3개입니다. 각각 190~300유로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랫은 300-400까지 다양합니다. 더 싼 곳도 있는 거 같긴한데 잘 못봤습니다. 보증금은 보통 두달 치 월세 비용입니다. 기숙사의 경우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도 좁고 부엌도 좁고 다 좁습니다. 식기류와 침구류등 책상, 옷장, 침대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다 사야합니다.

-플랫은 대부분 다 갖추어져 있어 몸과 자기 소지품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격과 위치에 따라 집 형태가 천차만별인데 잘 보시고 부엌이 적당히 큰 곳을 고르는게 좋습니다.(플랫: 한 층에 부엌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고 방이 2-4개 있어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함). 플랫은 집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 다 까입니다. 처음 집을 구해주는 버디가 무조건 6개월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몇몇 학생들은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5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5개월만 하고 싶다고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메일로) 전 기회가 되어 금오공대 학생과 같은 플랫을 썼는데(3인플랫. 한국인2,

독일인1), 나중에 한국인과 같이 산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몸 아플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의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음).

-생활비는 여행을 다니지 않으면 무척 아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물가가 한국의 반 정도에서 3분의 1정도이기 때문에 외식을 자주하지 않으면 돈이 크게 나갈 일은 없습니다. 생필품, 화장품도 무척 싸입니다. 독일에 도착하기 전 슈파카세(독일은행)계좌를 만듭니다.(메일로 연락이 오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block이 걸려 있어 제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 온 후 720유로 씩 여섯달치인 4320유로를 이 계좌에 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럼 매 달 1일 슈파카세 은행에서 720유로 씩 새로 만든 계좌에 넣어줍니다. 체크카드와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송금할 수도 있고 가게에서 쓸 수도 있고 돈을 뽑아 쓸 수도 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등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하일브론에서 보내는 메일은 잘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따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녀온 학기엔 각 나라에서 온 모든 교환학생들이 왓츠앱(유럽의 카카오톡 같은 메세지 어플) 그룹챗을 만들어 정보도 교환하고 파티도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총 인원이 100명정도 되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 활동은 따로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멘자의 점심은 맛이 별로고 쿠키류가 맛있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화장실은 건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샤워할 때 샤워커튼을 꼭 욕조 안으로 넣고 유리문인 경우 끝까지 잘 닫고 샤워해야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옷 등 거의 모든 생필품이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굳이 안들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옷) 한인마트는 없지만 아시안마트가 몇 군데 있어 고추장, 된장, 라면 등 간단한 식재료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독온라인'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많이 주문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씨메스터 티켓을 발급해 줍니다. 이 티켓으로 학 학기 모든 트램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 안됩니다.

-시간 많으실것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 하루 계획 잘 세우고 여행 잘 다니고, 집 주변 레스토랑이나 펍, 공원 등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한 학기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학기 잘 다녔습니다. 좋은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중간중간 여행도 잘 다녔습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오는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온다는 데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가면 영어 늘겠지'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더 하고 올 걸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보통 교환학생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 유럽의 교환학생(에라스무스)들은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외국인과 어울리며 얘기하고 같이 파티를 즐기려면 영어로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안돼서 힘들었지만, 주눅들지 않고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한 결과 몇몇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화를 통해 영어가 늘었지만, 다음에 오는 교환학생들에게 미리 영어회화 공부를 많이 하라고 알려두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